

신차 효과·가격인하 혜택에 전기차 보조금 신청 폭주

승용차 30개·화물차 45개 지자체서 접수 마감 기아, PV5 앞세워 월간 전기차 역대 최대 판매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인하와 신차 출시 효과가 맞물리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8일 기후환경에너지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별 보조금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광주시 전기 승용차는 지난 1월 30

일 접수를 시작해 이날 기준 올해 예정된 1930대 중 1252대가 접수됐다.

전남의 경우 순천(500대)을 비롯해 여수, 나주, 광양, 담양, 무안 등은 예산 소진으로 신청 접수가 이미 마감됐으며, 목포시가 96대 배정에 122대가 접수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보조금 신청 건수가 당초

보급 예정물량을 넘어서 조기 마감에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160개 지자체 중 30개 지자체에서 배정 물량이 소진됐거나 잔여 물량이 1대 미만으로 사실상 마감 단계에 들어섰다.

전기 화물차 보조금 소진 속도는 더욱 빠르다.

전국 45개 지자체에서 접수 물량이 배정치를 크게 상회해 조기 마감에 예상된다. 특히 물류·운송업을 중심으로 전기 상용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은 접

수 시작한 달 만에 배정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특히 전북 전주시는 120대 배정에 299대가 접수되는 등 원래 예정 물량보다 2배가 훨씬 넘는 차량의 보조금이 신청됐다.

대전시(161대 배정에 225대 접수, 이후 배정 및 접수 대수만 표기), 경기 남양주시(230대, 281대), 충남 아산시(100대, 157대), 경북 포항시(150대, 219대)도 배정 물량보다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지역도 마찬가지로 광주지역 접수가 마감됐고 전남 나주, 담양, 순천 등도 배정

물량이 일찌감치罄이 됐다.

이처럼 보조금 소진이 빠른 것은 자동차 업계의 가격 인하 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기아는 준중형 전기 SUV EV5 롱 레인지 모델과 EV6의 판매가격을 각각 280만원, 300만원 인하했고 2026년식 EV3-EV4의 판매 가격을 동결했다.

그 결과 기아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1만4488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월간 전기차 판매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단일 브랜드 기준 월 1만대를 넘어선 것

은 기아가 처음으로, 수입 전기차 강자인 테슬라를 6600대나 앞서기도 했다.

상용차는 신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기아의 첫 목적기반모빌리티(PBV)인 PV5는 올해 1~2월 누적 4993대가 판매됐고, 특히 지난달은 총 3967대가 판매되며 국내 완성차 5개사 전기차 모델 가운데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 기아 봉고3 EV도 나란히 판매 4위와 6위에 올랐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코스피, 5580대 강보합 마감 방산주 강세...코스닥은 3%↑

코스피가 6일 중동 전쟁 확대 불안감 속 등락하다 5580대에서 강보합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2.88p(1.66%) 내린 5491.02로 출발해 0.97p(0.02%) 오른 5584.87에 장을 마쳤다.

5381.27까지 하락 폭을 키우던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 장 막판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2조9503억 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9523억 원, 1조114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6319억원 순매도를 나타냈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한화에너지(7.24%), 한화시스템(5.37%) 등 방산주가 동반 상승했다.

반면 삼성전자(-1.77%), SK하이닉스(-1.81%) 등 반도체주가 내려 지수 상승 폭을 제한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08p(0.10%) 오른 1117.49로 시작해 38.26p(3.43%) 오른 1154.67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 가파른 상승에 프로그램매수 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전날에 이어 발동하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기관이 4719억원 순매수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88억 원, 381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로 인해 환율도 상승했다.

연재용 기자 djwodyd0316@gwangnam.co.kr



농협은행 해남군지부, 지역상생 금융 실천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는 최근 군지부 회의실에서 현주 지부장과 명현군 해남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해남사랑카드 적립금 9700만원을 해남군에 전달했다. 해남군과 농협은행 해남군지부는 협약을 통해 지난 2002년부터 해남사랑카드 이용 금액의 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매년 해남군에 전달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적립금은 군 예산에 편성돼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 이어 전남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

1.6%·1.9%...과일·채소 가격 하락 영향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전국 2%대 유지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한 데 이어 전남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오면서 광주·전남 지역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데이터터치 호남지방데이터터치가 발표한 '2026년 2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37(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다.

지난 1월 1.8%를 기록한 이후 상승률이 0.2%p 낮아지며 두 달 연속 1%대를 유지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했다. 식품과 식품 이외의 품목이 각각 1.7%, 1.2%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4.8% 하락했다. 신선어개는 6.7% 상승했지만 신선채소(-11.0%)와 신선과실(-6.6%) 가격이 크게 내리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했다. 굴(-37.5%), 배(-27.8%), 배추(-17.6%) 등의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다만 쌀(17.5%), 고등어(15.9%), 돼지고기(10.1%)는 큰폭으로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상승도로(7.7%)와 도시가스(0.5%)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 올랐다. 전기료는 0.4% 하락했다.

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2%대를 이어 오던 상승률이 6개월 만에 다시 1%대로 내려앉았다. 연재용 기자 djwodyd0316@gwangnam.co.kr

관세청,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가동

수출입 기업 통관·세정 지원

관세청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중동 사태로 인해 되돌아온 화물 운송에 대해 최우선 통관을 실시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수출 신고 후 선적 지연이 발생할 경우 적체 기간(30일)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중동 상황과 관련해 수출 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는 면세 특례를 적용해 기업 불이익을 방지할 방침이다.

수출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 환급 신청도 당일 즉시 처리한다.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 기한 연장

과 분할 납부를 지원해 운송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 등으로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편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해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분부·직할세관에 '중동상황 피해기업 접수 창구'를 설치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세관에서 중동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수출신고 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서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인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관과 관세 세정 전반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 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수원시에 위치한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올해 상반기 'K-FOOD 아카데미' 입학식을 열고 농식품 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aT, 농식품 산업 이끌 'K-FOOD 아카데미'

CEO MBA·유통·글로벌마케팅·AI 전문가 과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수산식품 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 양성에 본격 나섰다.

aT는 최근 수원시에 위치한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올해 상반기 'K-FOOD 아카데미' 입학식을 열고 농식품 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K-FOOD 아카데미'는 지난 2004년 출범 이후 농식품 산업 분야 대표 심화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약 326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며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과정은 K-FOOD CEO MBA, 농식품 유통 전문가, 농식품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농식품 AI 전문가 등 총 4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AI 전문가 과정'이 새롭게 개설됐다.

'K-FOOD CEO MBA 과정'은 농식품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경영전문대학원(MBA) 교과목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원료 수급과 상품화 전략, 스마트 농업 및 유통 혁신 동향, AI·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 농식품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설된 '농식품 AI 전문가 과정'은 5월부터 9월까지 약 15주 동안 운영된다. AI 기초 이론과 모델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AI 윤리적 활용, AI 특허 플랫폼 활용 등 농식품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에는 국내외 선도기업 현장 방문과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포함돼 산업 현장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1985년부터 약 22만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온 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임직원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는 교육과정을 통해 농수산식품 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나주=조희민 기자 pose007@gwangnam.co.kr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22일 앞당긴 오는 18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기 둔화 속에서 근로자 가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환급 대상 근로자가 있는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 확인을 거쳐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는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다만 신고기한을 넘겨 제출했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늦어도 31일까지는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도나 폐업 등으로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는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서면 신청하면 요건 검토 후 국세청이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완도 전복, 휴게소 '국민 메뉴'로 만든다

전남도·완도군·풀무원푸드앤컬처 17일 업무협약 직영 휴게소 27곳에 특화메뉴 8종·4월 말 출시

전남도가 완도 전복을 고속도로 휴게소 외식상품으로 키워 수산물 소비를 끌어올리는 판로 실험에 나선다.

지역 수산물을 '특산물 코너'에 머물게 하지 않고,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밥·찌개·면 메뉴로 일상화해 수요를 넓혀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오는 17일 도청 정약영실에서 완도군, 풀무원푸드앤컬처와 '전남 수산물 활용 외식상품 개발 및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전남도 행정부지사, 완도부군수, 풀무원푸드앤컬처 부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복을 '프리미엄 식재료'에만 묶어두지 않고 대중적 메뉴에 자연스럽게 있는 방식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데 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1995년 창립한

외식·급식 전문기업으로, 휴게소 운영(27개소)과 단체급식, 외식사업 등을 맡고 있으며 매출액은 9985억원 규모다.

전남도는 이 유통·운영망을 활용해 전복 메뉴를 휴게소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후 공항·리조트·호텔 등 외식 채널로 공급 범위를 넓히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출시 예정 메뉴는 휴게소 특화 전복 메뉴 8종이다.

밥류는 가마솥비빔밥과 볶음밥 2종, 찌개류는 콩글루텐부진짜갈매기·순두부찌개·된장찌개 3종, 면류는 꼬치어묵라면·꼬치어묵우동·매운꼬치어묵우동 3종으로 구성됐다. 전복을 토핑 형태로 더하거나 육수·된장 베이스에 어울리도록 손질·규격화를 적용해 휴게소 조리 동선에서도 구현 가능한 메뉴

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전남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판로 다변화'의 실현 모델로 본다. 전남은 그동안 대형 외식업체와 연계한 수산물 메뉴 개발을 이어왔다.

2025년에는 양생김밥과 전복김밥·전복물쫄면 등 4종 메뉴를 출시해 2억 원 실적을 냈고, 2023년에는 CJ푸드빌과 전복 스테이크·파스타, 간면식(RMR) 등을 선보여 3억원 실적을 기록했다. 단발성 기획에 그치지 않고, 외식 채널별 소비 접점을 넓혀온 흐름을 휴게소 시장에 적용하는 셈이다.

판매는 풀무원푸드앤컬처 직영 휴게소 27개소를 중심으로 4월 말부터 시작한다.

전남도는 5~12월 홍보영상 제작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병행해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외식사업부가 운영하는 공항·리조트·호텔로 전복 특화 메뉴 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